

지역 매아리

‘농번기공동급식 지원’ 큰 호응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 시행중인 농번기공동급식(이하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공동급식 지원사업이란 파종시기와 수확시기 등 농번기 철에 조리된 인건비와 부속비를 연40일 이내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번기 중 급식 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전라북도 삼라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20인 이상의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사업 참여 희망 농가가 20가구 이상인 마을이 대상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에는 64,800천원을 투입하여 27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월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빔고 고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세심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하며 “또한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권)는 4일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현장평가회는 정읍시 삼산동 신문식농가 외 2농가의 논을 활용한 고추 재배 포장에서 이루어졌고 50여명이 참석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계속적인 밭 재배로 연작장애와 풀질 및 수량이 다소 떨어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논에 고추를 재배하여 논 활용도는 물론 고추 자급율을 확대하고 노지고추 조기 다수확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개발한 종합 기술을 영농 현장에 직접 실증 시험하는 사업으로 시범요인은 정읍지역 논토양에 적합할 수 있는 내습성선발 고추품종 7종을 식재하고, 조숙재배를 위한 정식 초기 UV부직포 덮기, 도장을 억제하고 절간을 짧게 하기 위한 유인망 활용,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관·배수시설을 설치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3대 고추 명산지로서 정읍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논에 대체 작물로서 고추 조기 재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AI·구제역 차단 대책 추진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고창군이 AI·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AI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황조정되고, 반복 발생 지역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및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등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승인서 발급,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하며 전담공무원 98명을 지정, 예찰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인 동립저수지 주변은 공동방제단 3개반·군방제차량·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주기적 소독 및 육용 오리 11농가/185,000마리에 대하여 다읍담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제한을 시행, AI·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우재류(소·돼지·염소 등)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AI·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며 외부인·차량 통제, 울타리 보수, 축사 동별 전용장화 사용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구제역·AI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자제 없이 군 축산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 느끼는 뜻깊은 하루”

부안 하서면,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펼쳐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지난 4일 부안군 하서면 게이트볼장에서 관내 4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식전행사와 초청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하서면 새마을지도자(회장 강승구)·새마을부녀회(회장 고현숙)·새마을문고회(회장 이향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드렸다.

하서면 새마을 단체들은 효의 참 의미를 실천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관내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효 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돼 흥겹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강승구 새마을지도자 지회장은 “매년 어르신에게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 어르신 어울림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지난 4일 부안군 하서면 게이트볼장에서 관내 4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한마당에도 많은 어르신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문숙자 하서면장은 “따뜻한 하서면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서 청문실, 현장 근무자 소리 수렴 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지·과출소에 진출 현장직원의 고충 등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은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 서로의 고충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며 직원 간 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10월에는 99회 전국체육대회

를 비롯 국경감사, 모양성축제, 국화축제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거나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애로사항과 잘 된 사례를 적극 발굴 사기진작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일환이다.

모양지구대 박성찬 경위는 “청문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는 물론 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직원들 모두가 사기진작 된다며 청문기능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 고맙다”고 전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사랑의 손 편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 수렴 및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역시 그 일환으로 직원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조직 내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겨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서 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여야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음을 알아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15일과 16일에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취업준비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립중앙도서관(소장 박광섭, 이하 중앙도서관)이 오는 15일과 16일에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면접 이미지메이킹과 프로필 사진 촬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접 이미지메이킹 강의는 15일 오후 2시에 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4층 문화교실에서 진행된다.

15일 열리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는 20세 이상 취업준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

염미현 대표와 사진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취업을 위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정읍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은 앞서 지난달에도 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내 휴게실에서 기초건강검진, 인바디, 스트레스 검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관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복한 정읍시민 지키기 ‘총력’

산외면 정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수년전 침수 피해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산외면 정량리 일원에 ‘정량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년에 걸쳐 지방하천인 산외면 원정마을을 일원의 정량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내용으로는 총연장 1.9km의 하천 법면을 호환블록으로 보강하고, 사업구간에 설치된 교량 9개소를 철거한 후 확장하여 재설치한다.

원정마을은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정량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다. 지난 2005년에는 주택 20동과 농경지 4ha가 침수되었고, 2011년 태풍 ‘미파’ 내습 시에는 주택 42동과 농경지 7ha가 침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이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체 현지 실사 후 2017년 10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시는 2018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규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9월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30억원 포함 총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금년 9월 시비 30억원을 들여 시설계약이 완료되고 있으며, 시설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정읍시,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민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in Korean describing the product and gift se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